



■ 토 론 3.

자활에서의 노동자협동조합 운동의 전망 모색에 대하여 일자리 창출의 측면에서 자활기업과 협동조합

이 병 학

협동조합기본법제정연대회의
입법추진팀장



자활에서의 노동자협동조합 운동의 전망 모색에 대하여

일자리 창출의 측면에서 자활기업과 협동조합

이병학(경기광역자활센터장 협동조합기본법제정연대회의 입법추진팀장)

2005년 경기지부에서 주관한 일본 노협 연수에 참여한 적이 있었다. 당시 막 만들어지기 시작한 '자활공동체'의 사업적, 조직적 전망에 대한 고민이 많던 시기여서 일본 노협의 운영방식이 무척 의미있게 다가왔다. 특히 센터사업단의 활동을 보면서 당시까지만 해도 독자적인 생존을 모색하기엔 취약했던 자활공동체의 대안적 모델로 고민하기도 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한국에서 온 젊은이들을 위해 머리가 히끗히끗한 지도부가 총출동해서 연수 전 과정을 안내해 주고, 늦은 밤까지 술자리를 함께 하며 우리를 격려해 준 일이다. 특히 지금은 고인이 되신 일본노협의 간노 이사장이 정종대병을 들고 술집에 들어서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것이 일본노협의 정신이었던 것 같다. 그때 일본노협과의 정기적인 교류를 성사시켰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꿈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 기쁘기도 하다.

2011년, 자활에게 협동조합은 다소 급작스럽게 다가왔다. 협동조합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법의 부재 속에서도 운영을 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해 온 많은 자활공동체들이 있긴 했지만 법 제정이 이렇게 빨리 되리라는 생각을 미처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협동조합기본법의 제정은 우리에게 빛이요, 그늘이다. 협동조합운동을 꿈꾸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협동조합을 현실로 만들어준 반면, 법의 제정이 주체적 노력의 결과라기보다는 정부로부터 주어진 측면이 강한 탓에, '사상누각'이 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본노동자협동조합 운동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일본 노동자협동조합 운동은 어려운 여건가운데에서도 협동조합 운동의 전통과 원칙을 지켜가면서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출자' '노동' '관리'의 삼위일체와 '일하는 사람들끼리의 협동' '이용자와의 협동' '지역과의 협동'의 3개의 협동, 그리고 기본철학인 '노동자는 성장한다'라는 신념은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원칙들을 지키고 발전시킬 때, 「법제정으로 유리한 환경이 마련된 것은 하나의 동기일 뿐이며, 제도 활용론이라는 관점은 주체가 바로 서있지 않을 경우 실리주의로 빠지게 하거나, 제도 및 정책에 좌우되는 결과(문보경)」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협동조합 전환에 대한 관심 이전에 정신에 대한 성찰이 우선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협동조합운동에 있어 자활은 채권자이며, 동시에 채무자이기도 하다. 채권자라 함은 1990년대 노동자협동조합을 표방했던 생산공동체 운동이 제도화된 것이 자활사업과 자활공동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활사업의 제도화로 생산공동체 운동의 주력들이 자활사업으로 상당수 진입하면서 노동자협동조합 운동이 침체를 겪게 된 것이 자활이 협동조합에게 남긴 빛이라고 할 수 있다.

협동조합이 허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형식적으로는 '영리회사'(혹은 개인사업자)이지만, 내용적으로는 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해 온 자활공동체가 상당 수 있다.

이들은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1인 1표)'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출자)' '교육훈련' '지역사회에의 기여' 등 협동조합 운동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아울러 자활에서 '주민주체'는 훼손할 수 없는 가치로 자리잡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협동조합법의 부재라는 엄연한 현실은 협동조합 운동의 가치를 지켜내는 데 많은 한계를 가져오기도 했다. 상당수의 자활공동체가 영리회사(혹은 개인사업자)로 운영되면서 협동조합 운동의 원칙과 멀어져 있다.

자활공동체의 「취약한 경제적 성취는 조직의 특정한 형식을 고민하기 보다는 시장에서의 생존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할 수 밖에 없다(김정원)」

많은 자활공동체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들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협동조합으로 전환한 이후에 (즉 자신들이 주인으로 참여했는데) 회사가 혹시 문을 닫게 되면 자신들에게 책임이 돌아올까 봐 협동조합 전환을 꺼리기도 한다. 이들에게는 오히려 고용되어 있는 편이 훨씬 맘이 편한 것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자활공동체의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은 '경영개선'과 맞물려 있다고 할 수 있다.

협동조합이 갖는 공익적 성격은 자활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협동조합은 「제도적으로는 '시장으로의 진입'에 초점을 둔 조직이지만 공적 재원이 투입되고, 사회적 조직화로 만들어지는 자활공동체가 시장에 사적인 경제행위자로 머무는-(김정원)」 자활공동체가 지닌 모순을 해결해 줄 수 있다.

나아가 협동조합은 '연대'를 통해 가난한 사람들도 우리 사회의 주인으로서 설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에 그 중요성이 더할 수 있다.

지난 7월 오카야스 이사장이 방문했을 때 생협의 물류 배송업무를 노협에서 맡게 되면서 초기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다. '협동조합간 협동'이 일본노협 발전의 계기가 된 것이다.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이후 우리나라에도 협동조합간 협동이 강조되고 있고, 협동경제진영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어, 자활의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일본 노협의 성공요인 가운데 하나인 「꾸준하게 긴 세월을 견디어 낸 사람-(문보경)」의 존재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말을 우리의 처지에서 해석한다면 '그동안의 자활사업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꾸준히 하게 긴 세월을 견디어 낼 사람'이 많이 나와야 한다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 자리에 참석해준 많은 분들이 이 대열에 합류하길 기대한다.